

# 닭고기 벌크포장 유통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이명우 실장  
(주)하림 품질보증실

유통 과정에서 병원성 미생물의 오염방지 및 수 입육과의 차별화를 통한 경쟁력 확보를 위해 그간 끈질기게 추진해 오던 닭·오리고기 포장유통의 의무화가 2007년 1월 1일부터 일 8만수 이상의 도계장을 대상으로 드디어 시

행하게 되었다.

그러나 시행 3개월이 지난 지금의 현실은 어떠한가? 포장유통 의무화 대상 5개 업체중 일부 업체는 전면 시행이 안돼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는다는 이유로 일부분 시행을 안하고 있는 실정이다.

몇 년간을 공들여 겨우 시행하게 된 포장유통 의무화를 이제 와서 백지화 할 수는 없다. 정부 지침대로 시행하면서 문제점을 도출해 업계간 협의 또는 정부에 건의하여 해결해 나가면서 하루라도 빨리 전면 시행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처음 시행하는 일인 만큼 예상치 못했던 문제점이 나타나지 않을 수 없다.

소매단위 포장이나 부위별 포장 유통은 별 문제가 없으나 벌크포장 유통에는 몇 가지의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본고에서는 벌크포장 유통상의 문제점과 그에 따른 해결방안을 중요한 것 위주로 몇 개씩만 기술해 보고자 한다.

## 1. 벌크포장 유통의 문제점

### 1) 포장지내 얼음 미투입으로 인한 겉마름 현상

하림에서 대리점과 2차점 거래처에 포장유통 의무화에 따른 반응을 조사한 결과 전 대상 업체에서 지적한 내용이다. 특히 얼음이 없어 외부노출 또는 외기온도 상승시 쉽게 변색 또는 변질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 2) 대리점에서 2차점에 배송시 나타나는 품온 상승

도계장에서 대리점까지 배송하는 데는 온도

에 전혀 문제가 없다. 대리점에서 2차점에 배송할 때에는 대개 1톤차로 대리점별로 20~30개소의 2차점에 배송을 하는데, 냉동기를 작동한 상태라 하더라도 20~30번의 문을 개폐하기 때문에 품온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 3) 대리점 얼음 구매에 따른 구입선 변경

대리점에서는 2차점에 배송할 때 걸마름과 온도 상승을 방지하기 위해서 얼음을 자체 구매해 사용하는데 이에 따른 비용상승 때문에 포장유통 의무화 업체의 제품 구매를 꺼리거나 심지어는 구입선을 변경하는 사례가 있다.

### 4) 포장에 따른 비용 상승

포장에서 가장 중요한 심부온도를 내리기 위한 설비보완과 포장을 위한 포장기의 구입이나 포장재의 두께 및 재질 조정에 따른 비용과 포장 노무비가 상승된다. 포장재만 하더라도 20% 이상의 비용이 상승한다.

### 5) 포장유통 의무화 전면 미시행

포장유통 의무화 시행을 일부 업체에만 국한 시킴으로써 당초 포장유통 의무화 목적인 유통, 판매단계에서의 병원성 미생물의 2차오염 기회 차단과 수입산의 국내산 둔갑 유통 방지가 완전히 시행되고 있지 않으며 현재로서는 시행업체의 불이익이 가중되고 있다.



실링포장

## 2. 해결방안

### 1) 벌크포장 내외에 얼음 투입

걸마름 현상과 2차점 배송시 품온 상승을 방지하고, 대리점의 자체 얼음 구입에 따른 불만을 해소하기 위해서 얼음을 투입해야 한다. 문제는 투입 방법이다.

방법에는 첫째, 포장지내에 얼음을 투입하고 실링이나 클립하는 방법이고, 둘째는 얼음팩을 만들어 포장지내에 투입하는 방법, 셋째는 포장한 상태로 그 위에 얼음을 살포하는 방법 등인데, 이중 가장 좋은 방법은 역시 포장유통 의무화 시행 이전에 사용했던 '포장지내에 얼음을 투입하는 방법'이다.

얼음의 안전성과 제품의 흡수율이 문제가 될 수 있으나 전에도 아무 이상이 없었으며 현재도 포장유통 의무화 미시행 업체에서는 그대로 시행하고 있지 않은가!

하림에서는 이와 관련하여 포장지내 얼음 투

입량을 얼마로 해야 곱마름을 방지하고 드립량을 최소화할 수 있는지를 현재 여러 각도에서 실험하고 있는 중이고, 최적의 안이 나오면 적용해 볼 예정이다.

그러나 이 방법은 농림부의 지침에 어긋난다는 것이 문제다. 그렇지만 위 문제점에서 나열했듯이 중간유통 단계에서 제기된 많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꼭 해결하고 넘어가야 할 일이지 농림부에서 유통성을 발휘해 이점만은 완화하여 시행할 수 있도록 특단의 조치를 해 줘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 2) 포장유통 의무화 적용시기 단축 및 시행업체 확대

농림부의 포장유통 의무화 확대시행 계획에 의하면 2007년도에 축산물가공처리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일 도계 50,000수 이상인 업체를 대상으로 2008년도에 시행하고, 역시 2008년도에 시행령을 재개정하여 2009년부터 가공장, 모든 판매장 등을 대상으로 전면 시행한다고 되어 있다.


그러나 포장유통 의무화의 목적과 근본 취지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2008년도부터 전면 시행해야 한다. 만일 영세업체나 재래시장 판매점 등을 고려하여 불가피하게 전면시행을 2009년부터 시행해야 된다면 2008년도에는 일 도계 50,000수 이상인 업체를 대상으로 할 것이 아니라 20,000수 또는 30,000수 이상의 업체와 수입업체로 확대 적용토록 해야 만이 당초 목적에 어느 정도 부합하리라고 본다.

포장유통 의무화를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적용시기 단축 및 시행업체 확대가 시급하다.

## 3) 포장유통 의무화 시행에 따른 정부 자금지원

포장유통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포장하기 직전 심부온도를 2℃ 이하로 유지하기 위한 설비보완에 따른 경비, 포장 시설비(포장기기 구입비 포함) 및 포장비(재료비 및 노무비) 등의 많은 비용이 상승되기 때문에 이에 따른 시설비와 포장비의 일부를 정부에서 지원함으로써 포장유통 의무화를 목표대로 조기에 정착시킬 수 있으리라고 믿기에 정부의 특단조치가 있어야 한다.

이상 포장유통 의무화에 따른 벌크포장의 문제점과 해결방안을 몇 가지 나름대로 기술했으나 가장 중요한 것은 업체나 정부가 조기 정착을 위해 얼마나 많은 집념을 가지고 노력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생각된다.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고 소비자에게 안전한 제품을 지속적으로 공급하기 위해서는 포장유통 의무화는 선택이 아닌 필수이기에 업체는 강한 의지를 가지고 대처해야 하며, 정부는 초지일관 집념을 가지고 끊임없는 지도 단속을 통해서 조기에 정착시켜야 할 것이다. 

기회를 붙잡는 사람은 심중팔구 성공한다.

그리고 실패를 극복해서 자신의 무기로 삼는 사람은 100% 성공한다.

- 테일 카네기